

계육산업 발전방향_ 2편

미국 닭고기시장 가격 결정 방법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원가 결정
3가지 가격결정방식 중 자율적 선택

2007년 12월호에 예정됐던 '계육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연구보고'는 다음호로 연기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계육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계육시세 결정방식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계육산업의 발전방향을 가능해 보고자 합니다.

김 용 호 대리 | (주)하림

● 글 쓰는 순서

- 1_ 계육의 가격 결정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 2_ 미국 닭고기시장 가격결정 방법
- 3_ 계육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연구보고
- 4_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Action Plan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 결정

미국에서는 닭고기 가격결정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능한 제품 수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미 농림부(USDA)와 그 대리기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사설기관에서 닭고기 및 식

란의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양계관련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닭고기 가격은 정부 보고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참조자료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는 주간 3회 작성, 보고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계열화 산업 발전으로 시세결정방식 교체

군소업체가 많았던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 계육시장도 농림부를 통해 농장의 생계시세 정보를 제공받았고, 생계시세가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었다.

트럭에 적재하는 통닭 제품에 대한 트럭 한 대 분량의 평균가격 형태로 생계시세를 제공하던 중, 육계 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5년을 즈음해서 생계시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계열화 사업의 발전으로 생계시세 제공의 실익이 없는 걸로 간주한 셈이다.

미국의 육계 계열화 작업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늘날 상위 20개의 회사가 92%의 MS(시장점유율)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육농가의 99.9%가 계열화 업체에 계약사육을 하고 있다.

3가지 계육시세 결정방식

미국의 육계 판매가격 결정방식에는 변동가격계약(variable price contract) 방식과 협상계약(negotiated contract) 방식, 그리고 가격입찰(price bid) 방식 등 크게 3가지 방식의 계

약이 있다.

변동가격계약방식은 옥수수·대두박 등 곡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50% 이상이 이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생산자에게는 원재료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량 손해를 막아주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낮은 육계가격 형성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막아준다. 또한 구매자에게는 공급 부족에 따른 육계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주는 완충역할을 한다.

월가의 계산 공식에는 도계 수율, 사료요구율, 병아리 월가, 육성률, 제조비용, 농가비용, 감별비용, 포장비용, 금융비용 등이 들어간다. 6,000개의 패스트푸드 체인을 가진 웬디(Wendys)같은 회사는 여기에 육가공 가공비용과 육가공 수율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협상계약방식은 미 농림부의 'Market News Reports'와 'Urner Barry'의 시장에서 발표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비포장 신선 통닭과 부분육 및 몇몇 냉동 통닭과 가슴육 등을 포함한 제품들이 종종 이 방식으로 판매된다. 24,000개 이상의 레스토랑 체인(대부분 맥도날드)에 공급하는 'Equity Foods'사와 3,500개 이상의 'Arbys'사, 'Panda'사와 맥도날드는 모두 일정한 형식의 협상계약에 의해 구매한다.

고정 단가 입찰방식은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구매자는 필요한 제품의 표준과 포장 사양에 대한 자세한 조건을 제시하며, 또한 납품 일정



들을 설정하고, 판매자는 공급할 수 있는 비밀 단가를 제시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미국에서 12번째로 큰 3,500개의 레스토랑 체인을 가진 'Arbys'사가 고정단가로 구매하며, 입찰은 1년 단위로 실시한다.

가공육 위주로 형성된 시장이 큰 동인

우리 시장의 닭고기 가격도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함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다. 미국 타이슨 푸드는 닭고기 분야의 마켓리더(Market Leader)이다. 타이슨 푸드와 같은 마켓리더들은 1990년대 이후 시장가격을 생산원가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미국의 선진 가격결정체계는 1970년대 이후 계열화·대형화를 거쳐 1980년대 이후 가공제품이 발전하면서 과거 생계 통마리 위주의 판매체계를 벗어나 부분·절단육 및 가공육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것이 큰 동인이 되었다.

※ 본고는 '함께해요 허림' 소식지 12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